마음이 생기니 法이 생긴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신라 때 원효 스님의 일화가 있다.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에 노숙을 하게 된 원효 스님은 한밤중에 잠을 자다 갈증이 일어나 잠에서 깼다. 어둠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 마침 조그마한 웅덩이에 고인 물이 손끝에 감지되어 입을 대고 마셨다.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잠을 잔 뒤 이튿날 깨어 길을 떠나려다 보니 어젯밤에 마셨던 웅덩이의 물은 해골에 썩어 고여 있는 물이었다. 갑자기 원효 스님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세가 올라옴을 느꼈다. 그 순간 원효 스님의 뇌리에는 한 생각이 섬광처럼 번쩍하며 스쳤다. 해골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안 탓으로 비위가 상한 것이었다. 모르고 지나쳤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인데 해골을 봄으로써 기분 좋지 않은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장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마음이 생기니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가지가지 법이 없어지는구나.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요, 만법이 인식하는 생각에 좌우되도다.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달리 구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독백한 원효 스님은 가던 길을 되돌아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는 말은 〈능가경〉에 설해져 있다. 〈기신론〉

신라 원효대사 해골물 일화
마음에 '생각' 일어나는 것
오염에 본래청정 변치 않아

은 〈능가경〉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많다.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기신론〉에서는 의식을 설명하면서 상속식과 분리식을 말한다. 의식이 집착을 일으켜 사물에 대해 '나(我)'와 '내 것(我所)'이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식이라 하고, 또 육근(六根-眼·耳·鼻·舌·身·意)이 육진(六塵-色·聲·香·味·觸·法)을 대하여 경계를 분리시키면서 번뇌를 일으키므로 분리식(分離識)이라 하며, 안팎의 모든 사물의 양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사식(分別事識)이라 한다. 또 의식은 견애번뇌(見愛煩惱)에 의해 증장되어 커진다.

견애번뇌란 견(見)은 지적(知的)인 것이고 애(愛)는 정적(情的)인 것이다. 이론적인 면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생기는 의심이나 오해 따위를 합쳐 견애번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번뇌의 종류를 이치에 어두워 생기는 것을 견혹(見惑)이라 하고 행위의 측면에 어두워 생기는 것을 수혹(修惑)이라 한다.

이치를 바로 깨달아 가는 길인 견도(見道)와 윤리적 실천을 완성해 가는 수도(修道)의 단계를 구분하여 견도위(見道位)에서 끊는 번뇌를 견혹, 수도위(修道位)에서 끊는 번뇌를 수혹 또는 사혹(思惑)이라 하는데, 이지적(理知的)인 견혹은 끊기 쉬운 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번뇌는 끊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로부터 견혹은 '돌을 깨듯이 단박에 끊을 수 있다'(頓斷如破石)고 하였고, 수혹은 '헝클어진 실을 풀듯이 점점 끊는다'(漸斷如藕絲)고 하였다.

식(識)은 원래 무명의 훈습(薰習)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다. 〈기신론〉 본문에서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識)은 범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이승들(성문(聲聞)·연각(緣覺))의 지혜로도 깨닫지 못한다. 법신보살들이 처음 바른 믿음을 내고 발심하여 관찰해서 법신을 체험하더라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며 나아가 보살의 마지막 지위에 이른 이라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은 최초의 본식인 아뢰야식을 말한다. 이 식은 가장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細中細)으로 부처님만이 능히 끊는 것이라 하였다. 마음의 본체 각(覺)은 불가사의하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때로는 물들어져 오염이 되고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염(染)·정(淨)·동(動)·정(靜)은 상대적인 별개의 상태지만 결코 개체적으로 분리되는 별개의 것이 아닌 비일비이(非一非異)이므로 알기 어렵다. 마음의 자체성품은 본래 청정하지만 무명이 있기에 무명에 오염되어 오염된 마음이 있게 된다. 비록 오염된 마음이 있으나 본래의 청정함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이치를 부처님만이 안다고 하였다. 다시 미혹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전일적인 한 법계를 통달하지 못하므로 본래 그대로의 참 마음과 상응하지 못해 홀연히 망념이 일어난 것을 무명이라 한다"고 하여 무명의 정의를 다시 '생각이 일어난 것'(念起)이라 하였다.

자비 보시 공덕은 한량이 없으니…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⑩ 자비로운 보시의 공덕

為己施一切 得報如芥子
(위기시일체 득보여개자)
救一厄難人 勝餘一切施
(구일액난인 승여일체시)
眾星雖有光 不如一月明
(중성수유광 불여일월명)
眾生垢心重 所施恒為己
(중생구심중 소시항위기)
菩薩悲心施 如灰去眾穢
(보살비심시 여회거중예)
救濟慈悲施 普為群生類
(구제자비시 보위군생류)
如是慈悲施 功德無窮盡
(여시자비시 공덕무궁진)
如此微妙施 安樂諸眾生
(여차미묘시 안락제중생)

번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체에 보시하는 것은 개자(겨자) 씨만큼의 과보를 얻을 뿐이지만, 한 명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나머지 일체에 보시하는 것만큼 수승합니다.

뭇 별들이 비록 빛을 내지만 하나의 달의 밝음 같지 않듯이, 중생에게 번뇌심이 거듭되는 것은 늘 자신을 위해 보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보시하기에 중생의 번뇌가 재처럼 식었고, 자비로운 보시로 구제하되 두루 모든 중생들을 위해 합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보시는 공덕이 한량이 없고, 이와 같은 미묘한 보시는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합니다.

해설

초의선사가 이르기를, "중생이 중생인 것은 욕심이 많아서다. 그러나 욕심으로 치면 부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없다"고 했다. 놀라운 직관력이 아닐 수 없다. 부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없다니! 온갖 중생을 다 구제하시려는 부처님의 원력(願力)을 '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중생에게 번뇌가 거듭됨은
자신을 위해 보시하기 때문

제바라 보살의 가르침은 좀 더 직접적이다. '중생에게 번뇌심이 거듭되는 것은 늘 자신을 위해 보시를 하기 때문입니다(眾生垢心重 所施恒?己)'라고 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원력(願力)'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불자들이 원력이라는 말 대신에 '기도(祈禱)'라는 말을 즐겨 쓴다. 기도는 신께 바라는 바를 비는 일이다. 소원을 비는 일이며, 또한 비는 의식을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 있어 '기도'라는 말 보다는 '원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다. 원력의 근본은 중생구제에 있다. 원력은 곧 보살심이자, 보살행을 다짐하는 마음이며 실천이다.

대표적으로 불자들이 예불 때마다 독송하는 〈천수경〉이 원력을 발원하는 내용이다. '개경게'부터 이미 발원의 문장이 시작되고 있으며,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계청'을 시작으로 관세음보살님께 발원하는 문장으로 경이 시작된다. '여래십대발원문'이 그렇고, '사홍서원'도 모두 발원문이다. 즉, 불자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불법을 배워 지혜를 얻고, 방편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자비로운 보시라야 공덕이 한량없고,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한다. 그러면 번뇌심이 거듭되는 자신의 중생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구제가 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람 부는 날

눈이 쌓이고 있다. 싸락눈이다. 한결 바람도 차갑게 느껴진다. 오후 5시 반, 산사엔 어둠이 빠르게 찾아든다. 산자락에 어둠이 깃들 이 때쯤이면 산은 텅텅 빈 채로 내게 말을 걸어온다. 비어있음의 적멸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적조로움의 편안함을 내게 안겨준다. 슬프나 슬프지 않고, 쓸쓸하나 쓸쓸하지 않게 비워둠의 여유를 일깨워 주고 있다. 습관처럼 나무침대에 앉아 졸고 있지만 화두는 새가 되어 추억의 숲을 날고 있다.

어린 시절의 코흘리개 아이가 절집에 온 후, 잔심부름으로 시작해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장만하며 길고 긴 5년이라는 세월을 넘기게 된다. 아이의 얼굴이 태어날 때부터 수상쩍게 생긴 탓도 있지만 승려 될 수 있는 기회를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자인 잘 생긴 행자들에게 우선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트고 터져

코흘리개 아이는 이제 회향할 나이 됐다
山 텅텅 빈 날엔 바람 불면 울고 싶다

도, 매 끼니마다 쌀 씻어 밥 지으며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울먹였다. 김칫독에서 포기김치를 꺼낼 땐, 김치 국물이 터진 손등에 스며들어 외마디 비명을 지를 만큼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이었다.

쌀뜨물에 김치 국물에 트고 터진 손등이 아리고 부어 왔지만 그럴 때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먹였고, 고향집이며 어머님을 찾고 부르며 베갯잇을 적시는 일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손등에 바르는 약은 멘소래담, 약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를 일이나 멘소래담도 아껴서 발라야 할 만큼 행자시절은 아프고 시린 추억으로 남아있다.

질기고 긴 행자 수업을 마치고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 속의 어려운 한자 익히기를 한동안 하다가 깨달음을 위해 해인사로 오게 된다. 성철 스님이 방장으로 계신 해인총림의 선원은 대장부들의 활기참이 가득한 열려 있는 도량이었다.

그런데 내겐 화두 몰입이 쉽지 않았다. 온갖 망상번뇌가 바람에 날리는 벚꽃처럼 순서도 절차도 없이 날아다녔다. 앉아있는 한 시간이 지루했고 어떤 때는 남아있는 5분도 지겨워 벽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원망하는 일도 많았음을 고백한다.

3개월 동안 누워 잠자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는 여섯 명에 뽑혀(사연이 길지만) 조사전에서 용맹 정진하는 일도 있었다. 나는 요령껏 앉아서 졸았고 사물이 둘로 셋으로 보이는 착시현상과 환시(幻視) 환청으로 정신이상증을 일으켜 한 달반 만에 조사전 선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뒤 군에 입대해 3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불교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심부름을 하게 된다. 불교신문사와 총무원에서 10여 년을 허송세월한 후 늦게야 철이 든다.

영혼이 있는지, 내생이 있는지, 부처의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 인도에서 3년, 네팔에서 2년, 티베트에서 3년, 중국에서 7년을 합쳐 15년을 해외에서 치열한 구도자로 머물게 된다.

인도에서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을 통해 영혼과 내생에 대해,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 온갖 의혹이 일시에 풀리게 된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의 좋은 스승, 착한 벗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이후, 티베트에서는 죽음을 예견하는 죽음의 자유로움을 익히게 된다.

중국의 7년은 이, 얼, 싼, 쓰로부터 시작해 중국의 고어(古語)를 배우며 아함부와 망등부의 경전내용을 살피게 된다. 수행과정을 드러낼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일이지만 '참봄(見)', '참앎(知)'을 이루었다면 비밀스럽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향을 해야 한다.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되 법거량을 즐긴다. 꾸밈과 조작됨이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상이 평화롭고 행복하다. 헐떡임과 흔들림을 줄여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이제 한 수행자가 늙디 늙어 마침표 찍을 날을 기다리며 추억의 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오늘 저녁처럼 싸락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고 산이 텅텅 비인 날에는 바람만 불어도 울고 싶다. 바람 부는 날엔 죽음도 앞당겨 어디론지 한 점 바람으로 떠나고 싶다.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불교실전의식 학인 모집

범음.범패.작법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각 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
◇ 천도재. 49재
◇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홍고 등)
◇ 기초교리 및 교학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장 소 : 수복불교대학

※ 1년 수련 후 법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수 복 불 교 대 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49(이수역 10번 출구 부근)
연락처 : 명선 010-8588-2816 / 묘련 010-2250-749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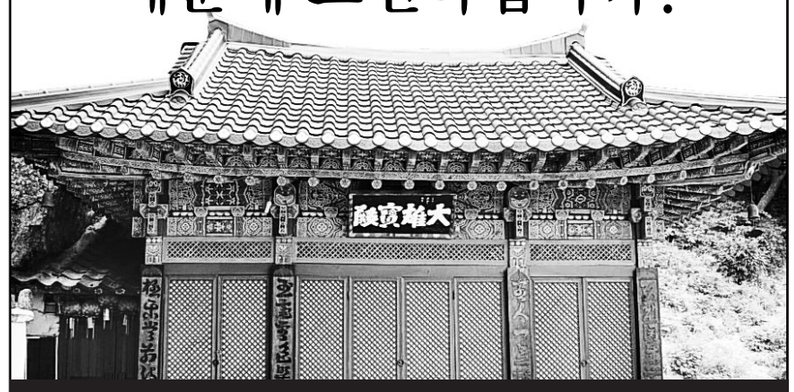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